

2010.9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0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0.9.28	대전MBC 대회의실	9/11	7	

- 시청자위원 불참자(2명) 명단: 장인순, 신현대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사업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서영석 보도국장, 김경환 기술국장, 이상현 전략기획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2	11	4	-	2	17	-	1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1	8	-	1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3건	3건	
교양	라디오에서 '교수급' 연구자라는 계층적 표현을 사용했는데 적절치 못하다.	지적 이후 바로 계층적 느낌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담당자에 통보	'10.8월
오락	타임워프 작위적인 웃음 유발 지적	11월 가을 개편에 맞춰 폐지 결정	'10.8월
교양	해병대 캠프를 다녀온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담은 프로그램 제작 제안	전국시대 등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해병대 캠프를 소개함	'10.8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기타	○ 창사 46주년 진심으로 축하한다. 대백제전 관련 방송 활약 대단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김영광 위원)	○ 황산벌 전투 재현을 주관해 관람객수 5만여 명을 기록했고, 보도국 특별취재팀 가동을 비롯해 전국시대와 전국기행, 라디오 등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행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폐막일까지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수용
교양	○ 시사분석과 시사플러스가 2주 정도 시간차 두고 같은 내용 방송했는데 나중에 방송된 시사플러스의 경우, 내용과 출연자 중복되고, 대안도 시사분석보다 훨씬 적어 맥 빠지는 느낌이었다. (김경숙 위원)	○ 시사분석에 비해 방송시간이 15분 짧은데다 ENG구성물이어서 구성상 문제제기, 전개, 입장정리, 대안 등을 배열해야하는 문제가 있지만 대안을 심도 있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참고
보도	○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 발 빠르고 심층적으로 취재해 보도해 달라. (김경숙 위원)	○ 4대강, 배추 파동 같은 사안에 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도하고 있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용
보도	○ 대전시와 각 구, 충남도와 16개 시.군의 예산 수립과 시민공청회가 이어지는 만큼 이에대한 심층 보도 필요하다.(방기봉 위원)	○ 새해예산 심의가 11월부터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의 혈세가 새지 않게 철저히 보도하겠습니다.	수용
보도	○ 일본 방송처럼 1주일간의 주요 뉴스와 화제를 묶어 주말에 방송하는 것을 제안한다. (방기봉 위원)	○ 아직 한국방송에서는 시도한적이 없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참고
교양	○ 야베스 공동체 프로그램 경쟁력과 품질 매우 좋고, 감동적이었다. 특집이 아닌 정기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 (김재영 위원)	○ 향후 정규물로 다룰 수 있는 여건을 보고 시청자 니즈를 파악 후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재 MBC 9사가 공동으로 휴먼다큐 제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용
교양	○ 시사분석에 오프라인 토론회처럼 트위터 실시간 시청자 반응 보는 방식 제안한다. (김재영 위원)	○ 트위터 실시간 반응을 방송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제작비와 인력이 필요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참고
방송편성	○ 개편 앞두고 프로그램 기획안 공모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수준이 매우 높지는 않겠지만 아이디어를 모으고 대전MBC에 대한 관심 제고할 수 있다. (김재영 위원)	○ 개편 전 수개월 전에 공모하는 절차가 따라야하므로 향후 적극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참고
보도	○ 대백제전 뉴스데스크 현지 방송은 내용이 입체적이고 분석적이어서 좋았다. 반면, 앵커가 매우 불안해보이고, 특히 여성앵커가 타사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김재영 위원)	○ 현지 생방송인데다 통신라인이 불안정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앵커의 경우, 신입인 만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수용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보도	o 뉴스데스크 여성앵커 비주얼에 비해 전달력 등 역량 매우 부족하다. 뉴스의 질을 생각한다면 훈련을 받드시 시킨 뒤 일을 하게 하고, 교체까지도 고려하면 어떨까 싶다. (안정선 위원)	o 현재 여성 아나운서가 2명에 그쳐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대체인력이 없는 실정이어서 당장 수용은 어렵지만 연말 신입사원 채용 시 수용하겠습니다.	의견참고
보도	o 뉴스데스크 도입부 주요뉴스 톤이 필요이상으로 높다. 영상도 삽입되지 않고 있는데 형식 변경을 고려해 달라. (안정선 위원)	o 주요뉴스 톤을 안정적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수용
기타	o 홈페이지에 표기된 각 매체별 지향점이 시청자의 욕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가을 개편 때 프로그램과 함께 개편 바란다. (안정선 위원)	o 홈페이지의 형식은 이미 새롭게 바꾸었으며 내용과 콘텐츠는 가을 개편에 맞춰 바꾸겠습니다.	수용
보도	o 가을 개편 시 자체제작 프로그램 중 제작비 대비 경쟁력을 감안해 폐지, 신설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다문화 가정을 다룬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좋을 것 같다. (안정선 위원)	o 다문화 가정은 현재 전국시대, e-세상이야기, 시사플러스와 라디오 희망찾기 민들레 등에서 주요아이템으로 다루고 있고 독립적인 편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을 개편에는 지역성, 공익성, 시청자 참여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견참고
보도	o 서울시처럼 여소야대 구조가 형성돼 일어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보도 바란다. (여운철 위원)	o 충남도의회가 여소야대인데 '친환경특위 구성 마찰' 같은 사안에 대해 계속 비판기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수용
교양	o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속편 다큐가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피해와 주민 고통, 환경오염이 주요 의제였다면 이제는 당시 지적됐던 대안과 해결책의 점검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길 바란다. (여운철 위원)	o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법적인 개선조치에 대해서도 취재하고 있습니다.	수용
보도	o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대전의 자율형 공립고, 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 교육관련 이슈에 대해 자세한 보도가 있었으면 한다. (김경옥 위원)	o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이에따른 보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용
방송편성	o 드라마 제작 다시 한번 건의한다. 제작비 많이 들지만 5분, 10분짜리 드라마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제작역량을 키우는 게 도움될 것 같다. (유치벽 위원)	o 제작비와 제작인프라의 서울집중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지역MBC연합으로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의견참고
보도	o 예총의 파벌 문제 등 지자체의 문제점과 폐해도 뉴스를 통해 다루면 좋겠다. (유치벽 위원)	o 실명 제보가 적어 기사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잃지 않겠습니다.	의견참고
보도	o 뉴스 앵커 비주얼 어색하고, 사회가 젊어지는 만큼 앵커도 젊은 세대로 기용했으면 좋겠다. 진행자따라 대전 사투리도 심하다. (김진국 위원)	o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사투리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	----------------	------	-----